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후 306만명 찾아

무등산이 지난 3월 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306만명의 탐방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광주시 등이 지난해 집계한 탐방객 수에 훨씬 못 미쳤다.

무등산 등반을 위해 증심사 지구를 출발지로 삼는 시민들이 많았고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해 무등산을 찾는 등반객이 특히 많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무등산 탐방객 수를 집계한 결과, 306만687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10일 밝혔다. 무등산 사무소는 광주 등 '탐방객 수 공개 자체 요청'에 따라 탐방객 수 집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무등산 사무소 직원 및 근무자들을 투입, 직접 탐방객을 집계하는 '인력계수' 작업과 탐방객이 많이 찾는 무등산 12곳에 설치한 '센서형 계수기'로 파악한 숫자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4월 42만4664명 ▲5월 46만4698명 ▲6월 44만

공원사무소, 4월부터 7개월간 탐방객수 집계
한달 평균 43만8000명... 10월 50만명 최다

1988명 ▲7월 37만3031명 ▲8월 46만1470명 ▲9월 39만2733명 ▲10월 50만8288명 등으로 한 달 평균 43만8124명이 무등산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심사 지구에서 무등산을 오르는 탐방객이 204만35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효사 지구 81만8899명, 화순·담양 방면 20만4399명 등의 순이었다.

무등산 탐방 출발지로 증심사 지구가 애용되면서 '증심사 지구 공원주차장' 이용객도 늘어났다.

지난 3월~11월 주차장 이용 차량은 7만4439대로, 전년 동기(6만6943대)에 비해 11% 증가했다. 주변 상가 매출도 전년보다 30% 가량 늘어났다.

버스를 이용해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도 많아졌다. 무등산 사무소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4~10월) 증심사·원효사 지구를 향하는 버스(증심사 8개노선·원효사 1개

노선) 이용객 수가 37만55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만9372명)에 견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탐방객 수치로만 보면 광주시가 지난해 집계한 동기간 탐방객 수(531만6461명)에 비해 무려 57.7%나 감소해 자치단체 발표 탐방객 수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측은 "조사 기간이 짧고 표본조사, 인력계수, 계수시스템 등이 일부 한정된 장소에서 측정한 점 등을 고려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무등산 진·출입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증심사 시내버스 종점 앞 80m 구간을 편도 2차로로 확장하고 버스 진·출입로를 일원화하는 '무등산 버스 종점 하차지 조성 공사'를 내년 진행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서부산림청 관계자들이 여수의 한 아산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잘라 연기를 쐬고 있다.

【서부산림청 제공】

광주·전남 소나무 재선충병 막아라

전국 55곳서 발생... 감염되면 100% 고사 서부산림청 항공예찰 강화 등 방제 총력

소나무 재선충병이 광주·전남지역에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던 광주에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견돼 방제 당국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예방을 위한 방제당국의 다각적인 노력도 눈물겹다.

◇광주·전남 소나무 재선충병 '비상'

지난달 7일 광주시 광산구 신통동 한 아산에 누렇게 말라 죽은 소나무가 널려 있었다. 소나무 특유의 푸른빛이 사라졌고, 힘없이 떨어져 나간 잎이 바닥에 수북했다. 반경 2km 내 비슷한 증상을 가진 소나무도 88그루나 발견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들 중 10그루의 표본을 채취·검사한 결과, 6그루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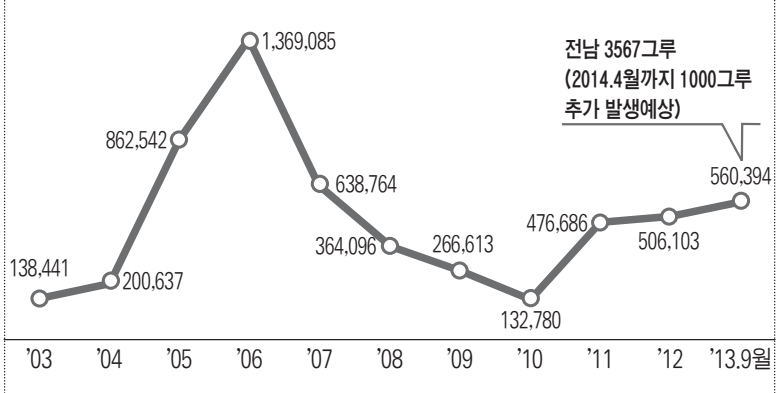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광주에서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뒤 올해까지 소나무재선충의 피해를 입은 곳은 광양·여수 등 전남 지역을 비롯, 전국 55개 시·군·구에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발생했다.

재선충병으로 말라죽은 소나무도 ▲2010년 13만2780그루 ▲2011년 47만6686그루 ▲2012년 50만6103그루 ▲2013년 56만394그루(9월 현재) 등으로 증가 추세다.

내년에도 4월까지 소나무 42만6150그루가 재선충 피해를 입어 고사할 것으로 산림청은 예상하고

■재선충병으로 말라죽은 전국 소나무 수 (단위:그루)



▲소나무 재선충병은

0.9mm 가량의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해송·잣나무 등에 침투해 양분 이동 통로를 막고 나무 조직을 파괴해 말라 죽는 증상.

한번 감염된 나무는 100% 고사해 현재까지 재선충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없어 감염된 소나무를 잘라낸 뒤 훈증·소각·파쇄를 통해 매개충을 죽이는 방법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다.

소나무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면서 최대 반경 3km까지 퍼진다. 일반적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에는 1만 5000마리 정도의 재선충이 들어 있으며 감염된 재선충 1쌍은 20일 뒤면 20만 마리로 급속하게 번식한다.

있다.

특히 여수·순천·광양 지역의 경우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속출하면서 지난 9월까지 모두 소나무 3567그루가

재선충 피해로 고사했고 감염 의심 소나무도 1000그루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상고온과 가뭄 등으로 재선충 번

식이 활발해지는 환경이 조성됐고 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고사목을 뺀 것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소나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산림청 판단이다.

◇산림청 방제 총력

청정 지대로 분류됐던 광주·전남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방제 당국도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이현복)은 이미 10월부터 광주·전남을 비롯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항공 예찰과 이동 단속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고사한 소나무를 GPS를 이용, 도면에 표시한 뒤 외부로의 반출 여부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서부산림청은 특히 전남 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여수·순천과 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압축 방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 발생지역 외곽부터 중심부로 이동하면서 방제 활동을 추진, 2512그루의 고사목 제거에 나서는 등 선제적 방제 전략으로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 발생 예상 지역을 사전에 예측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제전략'을 추진, 2017년까지 광주·전남지역이 재선충병 청정 지역이 되도록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수달



털조장나무

▲'깃대종'

(Flagship species) 해당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종으로, 사람들이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는 생물을 말한다.

'깃대종' 털조장나무·수달 보호 나선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10일 무등산의 문화·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깃대종'으로 수달과 털조장나무를 선정했다.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무등산 자생 동·식물 중 후보군으로 털조장나무와 으름난초 등 식물 2종과 수달과 담비, 두꺼비 등 동물 3종을 선정한 뒤 시민 2045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1277표(62.5%)를 받은 털조장나무와 1048표(51.2%)를 받은 수달을 최종 선정했다.

털조장나무(녹나무과)는 남부 지방에 주로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관상 및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식물로, 이른 봄 노란 꽃을 피우고 맑은 향기가 나서 '치유의 나무'로 불린다.

수달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및 천연기념물 제330호,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동물로, 무등산에는 제2·4수원지, 풍암제 일원 등 모두 8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공원 내 깃대종 야생동·식물은 무등산 국립공원 깃대종 2종을 포함해 모두 39종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금매"

1층상가 - 25평

- ▶ 정문코너, 편의점 임대 중 (보3천만원에 월 125만원)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금매 1억 7,500만원

13층 - 오피스텔

- ▶ 53평, 주거겸 사무실
- ▶ 코너, 양동/하천쪽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금매 1억 5,000만원

10층 - 오피스텔

- ▶ 29평, 주거겸 사무실
- ▶ 하천쪽, 전망 좋음
- ▶ 시세 1억원 정도
- ▶ 금매 6,100만원

⇒주인직매함
H.010-4667-9300

경매투자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공동투자 가능
- ▶ 실전사례 중심교육
- ▶ 교육비, 1200만원
-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오천경매 H.010-3605-5000